Hello! I am Sister Barbara Einloth. By birth a Pittsburgher, I'm glad for my roots there. My 57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have given me opportunities beyond Southwest Pennsylvania; I am different <u>because</u> of them.

My parents, Bill and Grace Einloth provided my older sister Linda and me security and experiences for growth. We attended our parish elementary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for an excellent education. Graduating in 1964, I entered the community with ten of my classmates! Recently I realized that I am the last of a long line of Setonian members and their legacy to Sister of Charity life and history.

As a junior high and high school teacher, I specialized in language arts, English and religion. When I earned my Master's degree in theology, my focus shifted to teaching adults about our faith. After eight and a half years in parish and diocesan ministry, I took a sabbatical at the Jesuit School of Theology at Berkeley (California). This first experience in an international community also ignited an awareness of and commitment to social justice. Roles at Kino Institute (Arizona) and St. Michael Parish (Washington state) gave me opportunities to ignite it in adults and RCIA folks. Later, at St. Mary Parish (Ohio), the *Just*Faith process inspired many to see justice efforts as part of their Catholicism. Advocacy for justice remains a priority for me.

Appointed as community Secretary in 1997, I returned to Greensburg. The role put me in touch with U.S. Sisters all over the country and in Israel. When, with Sister Joyce Serratore, I observed the Korean Provincial Chapter of 1998, I began to experience firsthand the Sisters' hospitality, talent, and commitment. Then—and now with NewsLinks—making and strengthening connections among members of our provinces is very important to me. As Provincial Councilor (2012-2021) I enjoyed welcoming and escorting Sisters of the Korean Province in the Interprovincial Short-term Exchange program. Twice I participated in IECM. I still eagerly and proudly track ministry in Ecuador.

These days I continue what I began when Secretary (with guidance from Sr. Mary Halloran, a previous Secretary). I research the Roselia Foundling records and respond to inquiries, continuing our service to thousands of women, babies and their descendants—80 years in person and over 50 years by letter!

The hymn "We Are Called" summarizes my outlook and what I hope my life reflects: "We are called to act with justice. We are called to love tenderly. We are called to serve one another, to walk humbly with God."

안녕하세요! 바바라 아인로스Barbara Einloth 수녀입니다. 저는 피츠버그에서 태어나고 자란 피츠버그 토박이로 제 고향과 뿌리를 무척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랑의 씨튼 수녀로서 57년 동안 살아오면서 펜실베이니아 남서부를 넘어 더 넓은 곳에서의 기회를 갖게 되었고 이러한 기회 덕분에 다른 사람이 되었지요.

저의 부모님(빌Bill Einloth, 그레이스Grace Einloth)은 언니 린다Linda와 제가 잘 자라도록 보살펴 주시고 많은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언니와 저는 우리 가족이 다니던 본당의 초등학교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학교Elizabeth Seton High School를 다니며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1964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같은 반 친구 10명과 함께 수녀회에 입회했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마더씨튼의 정신을 살아온 수많은 회원과 그분들이 사랑의 수녀회의 삶과 역사에 남긴 유산의 끝자락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저는 작문, 영어, 종교를 전공했습니다. 신학 석사 학위를 받으면서는 성인 신앙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8년 반 동안 본당과 교구 사도직을 하고 난 후 캘리포니아 버클리Berkeley에 있는 예수회 신학교Jesuit School of Theology에서 안식년을 보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국제 공동체를 체험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해 인식하고 헌신해야겠다는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키노 인스티튜트Kino Institute(애리조나주)와 성 미카엘St. Michael 본당(워싱턴주)에서의 사도직은 성인들과 성인 교리교육RCIA 참가자들에게도 사회정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성 마리아St. Mary 본당(오하이오주)에서 함께한 JustFaith 프로그램은 많은 이들이 가톨릭 신앙의 일부로서 정의를 위한 활동을 이해하도록 영감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사회정의를 위한 옹호활동은 지금도 저에게 가장 우선적인 일이지요!

1997년에 수녀회 서기로 임명되면서 그린스버그로 돌아왔습니다. 수도회 서기로 일하면서 미국 전 지역과 이스라엘에 있는 회원들과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이스 세라토레Joyce Serratore 수녀님과 함께 1998년 한국관구 총회를 참관하면서 한국관구 수녀님들의 환대와 재능, 헌신을 직접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두 관구 회원 사이의 관계를 깊게 하는 일은 저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일을 미국관구 뉴스링크를 통해 하고 있답니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는 관구 이사로서 관구간 단기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한국관구 수녀님들을 맞이하고 동반하는 일을 하며 무척 즐거웠습니다. 은사체험IECM 프로그램에도 두 번 참가했고 에콰도르 선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이전에 서기였던 메리 핼로란Mary Halloran 수녀님의 지도에 따라 시작했던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녀회가 운영했던 로셀리아 영아원Roselia Foundling의 기록을 조사하고 문의에 응답하며 수천 명의 여성과 아기들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봉사하는 일입니다. 로셀리아 영아원은 수녀회가 80년 동안 운영했고 문을 닫은 이후로는 50년 넘게 편지로 요청하는 문의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성가 '부름 받은 우리We Are Called'는 제 인생관과 제가 삶에서 희망하는 바를 잘 보여줍니다.

"공정을 실천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네. 따뜻하게 사랑하라 부르시네. 서로를 섬기고, 하느님과 함께 겸허하게 걸으라 부르시네."